

북측대표단 접견 및 환송 오찬

김영일 총리 각하 그리고 함께 오신 일행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저께 오셨지만 저는 오늘 처음 보니까요. 환영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받기도 하고, 조금 전에 김 총리와 함께 환담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한 것은 합의 결과에 대해 모두가 아주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큰 선물을 주고 가시는 것이고 아울러 또 큰 선물보따리를 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40일전에 제가 걸어서 넘었던 (군사)분계선을 그 뒤에 다른 일로 평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일부러 내려가지고, 한번 또 그렇게 해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다녀가신 길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보다 가까워지고 협력을 통해서 함께 발전하는 아주 좋은 관계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통일에 이르기 위해 먼저 해결할 것은 마음의 장벽 제거

통일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장벽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쪽의 경제가 좀 비슷하게 함께 발전해서 어느 쪽도 어느 쪽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자존심 상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 마찰이나 또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않고 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제협력 과정은 통일의 시기를 가장 빠르게 앞당기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말로 백가지 이야기를 해도 이 장애가 걷히지 않으면, 적대하는 관계를 풀고 또 경제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통일로 가는 길이 아주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통일을 앞당기는 아주 역사적 대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남쪽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이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큰 결단에 의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고, 오늘 총리회담까지 잘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여러 가지 회담들도 정상회담 그리고 총리회담과 같이 순조롭게 풀려가도록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함께 맛있게 드시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담소들 서로 다정하게 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